

#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신남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Household Debt

Shin-Nam Lee

Dept. of Tax & Accounting, Hyup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은 농림 및 어업에서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적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총자산에 대한 부채부담특성이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부채 금리를 낮추고, 가계부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금융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채보유 가계 중 심리적 부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에 비해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주제어 : 가계부채,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부채부담, 부채특성, 영향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and debt characteristics with household debt. The method of analysis was used SPSS 22.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were found to be lower academic background, more household members, job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women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uggests the need for the governm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risk from household debt. Second,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debt and average monthly debt repayments.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do financial education and consulting. Third, psychological debt burden group seemed that the households with more the average monthly interest payments and repayments on income, the more total liabilities compared to total assets. As the ages get higher, it was gradually increased. It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for debtor with household debt. Other factors(property prices or the financial environments) will be dealt with in the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 Household deb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debt burden, Debt characteristics, Affecting factors

Received 1 March 2016, Revised 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Shin-Nam Lee  
(Dept. of Tax & Accounting, Hyupsung University)  
Email: leeshinnam@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최근 선진국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11월 22일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1분기 말 기준)은 84%로 신흥국 중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18,20].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2015년 3분기 말 1,166조원으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110조원이 증가된 것이며,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1일에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2%p(130만원) 증가한 6,181만원이고,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에서 4분위까지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그 중 4분위(상위 20%~40%)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부채는 7,287만원으로 2014년 대비 3.8%p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영업자의 부채가 가장 큰 폭(3.8%p)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부채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고 고금리 부채 비중이 높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더욱 부실화가 될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18,19].

2016년 1월 26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부채 잔액은 4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29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 집담부채 잔액은 110조3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으로 6개월 사이 10조원 넘게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부채보유 가구의 재무건전성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 고령층 차주와 다중채무자의 채무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9,21].

부채보유 가계의 자녀 중 대학생의 저축은행 신용부채 취급잔액은 2014년 11월 말 2,074억원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대학생 신용부채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는 27.7%로 채무자 대부분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21,23]. 2015년 대학 졸업생의 평균부채는 1,321만원이고, 2015년 대학졸업생 1095명을 대상으로 잡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5명중 3명 정도가 '빚'을 안고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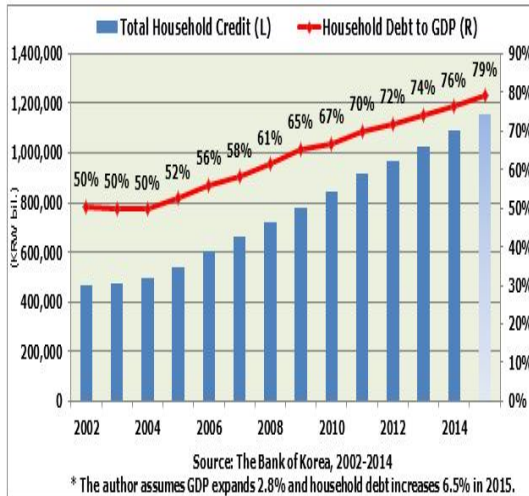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평균 부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부채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소유여부 등 미시적 방법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1,2]를 기초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이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거시경제 요인변수인 경기지표, 고용과 가계소득지표, 물가지표, 금리, 환율 등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3,4]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 2. 가계부채 현상 및 기존문헌의 고찰

### 2.1 가계부채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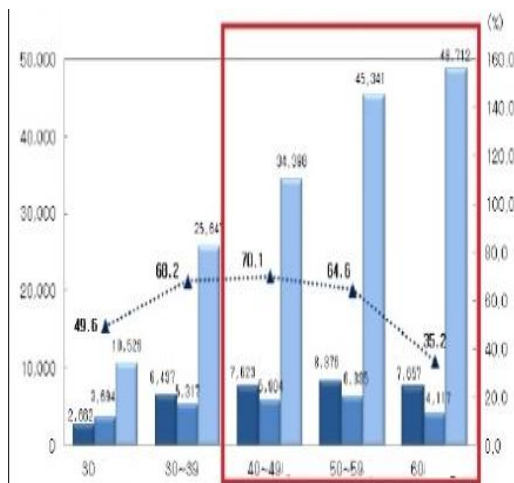
Jeremy(2012)는 LTV(Loan-to-value)와 DTI(debt-to-income) 한도가 도입된 이래 부동산 담보부채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5]. Main et al(2013)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정도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제공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취업상황 등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부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세계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였으며, Eggertsson과 Krugman(2012)은 새로운 Keynesian-style model을 제시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이나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6,7]. 다음 [Fig. 1]은 GDP 대비 가계부채를 나타낸 것이다[20,22].



[Fig. 1] Househld Debt to GDP

가계부채는 가구나 개인이 빌린 빚을 의미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5년 9월말 현재 1166조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고 2013년 4분기에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월 주택금융관련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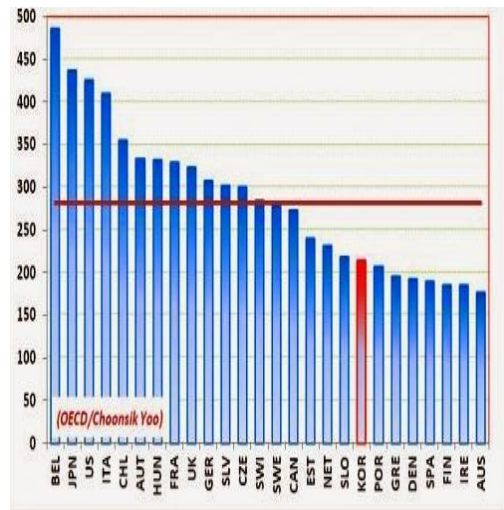
다음 [Fig. 2]는 연령대별 금융부채 가구보유 비율 및 가구당 보유액을 나타낸 것이다[20].



[Fig. 2] Financial Debt to Age

금융부채, 소득, 자산 별로 막대그래프의 비율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부채 금액이 높고, 소득 상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Fig. 3]은 OECD 회원국들의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최근 현황이다[20].



[Fig. 3] Financial Asset/Debt Ratio

가계부채가 많아도 금융자산이 이보다 월등히 많으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비율이 회원국들 중간 값 보다 낮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보면 분명 심각한 집단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값보다 위험한 구간에 속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있다. 가계가 부채와 관련하여 갖는 가계의 부채부담은 재정적 어려움을 뜻한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자산, 부채, 소득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표현한 것이 객관적인 부채부담이다.

## 2.2 가계 부채부담 연구

DeVaney(1994), Hayhoe et al.(2011)은 가계의 부채부담을 가계의 총부채, 월평균 부채 상환액, 금융부채 비중, 월평균 부채 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 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가계의 부채 보유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하였다[8,9,10].

Danes와 Retting(1994), Retting et al.(1997)은 심리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스트레스 6개 문항을 이용하여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1,12].

김경아(2011)의 연구에서는 국내 가계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부터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 직전인 2002년까지 부채규모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3]. 특히 이 기간 동안 부채가구가 지닌 부채의 비중이 소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금화내지 유동화가 수월한 금융자산에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았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려왔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카드 사태를 겪었던 2003년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 2006년까지 부채의 규모가 수용 가능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 다시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부채규모뿐 아니라, 국내 가계가 가구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채무부담 역시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부분에 대하여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2차~11차 연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가계의 부채유무 및 부채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 가구주가 남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고 자가 주택보유 가구일수록,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계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 이후에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과 부채특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미시적 방법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 부채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심리적 부채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부채특성은 심리적 부채부담에 따라 차이가 것이다.
- <가설 3>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채특성은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실증적 분석자료 및 방법

#### 3.1 연구자료 및 대상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동으로 2만 가구를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발표한 2015년 3월말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 4,246만원, 부채는 6,1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2014년에 비하여 2.2%증가하였다. 부채는 금융부채 69.9%와 임대보증금 30.1%로 구성되며, 금융부채는 4,32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86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전년대비 60세 이상 가구가 8.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3.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시도별 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도로 나타났다. 부채규모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계는 6,100가계였고, 이 중 매우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계는 21.8%, 약간 부담이 된다는 가계는 48.3%였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부채가 없다는 가계를 제외하고 부채가 있다고 대답한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채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3.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법과 온라인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300부의 중 278부의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채부담은 부채부담지표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65명으로 59.4%, 여성이 113명으로 40.6%로 나타났다.

나이는 50대가 157명으로 56.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패널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호황시기에 기대 심리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표본 수와 일치한다[13,17].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전문대졸 포함)이 191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은 사무직이 89명(32.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원의 수는 4명이상이 10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65	59.4
	female	113	40.6
Age (year)	<40	7	2.5
	40~49	105	37.8
	50~59	157	56.5
	≥60	9	3.2
Academic Background	Under middle-school graduate	9	3.2
	High-school graduate	67	24.1
	University graduate	191	68.7
	Over graduate school	11	4.0
Job	Office job	89	32.0
	Self-employed	73	26.3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trades	67	24.1
	Homemaker	15	5.4
Number of household	1	20	7.2
	2	58	20.9
	3	97	34.8
	≥4	103	37.1

4.2 부채특성 분석

Mian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부채의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채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는 가계가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소비감소현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위협하게 된다고 하였다[14]. 부채부담지표는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지표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처분소득(준거기준 < 0.25), 총부채/금융자산(준거기준 < 10), 총부채/총자산(준거기준 < 0.8)의 3가지를 이용하였다[15]. 부채부담에 대한 분석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처분소득은 0.37로 준거기준 보다 높아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총부채/금융자산과 총부채/총자산은 준거기준 허용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bt Burden Analysis (N=278)

Classification		Average/N%
Debt Characteristics	average monthly debt payments / average monthly disposable income	0.37(standard<0.25)
	total debt / financial assets	0.93(standard<10)
	total debt / total assets	0.66(standard<0.8)

4.3 인구통계학적으로 대한 심리적 부채부담 분석  
심리적 부채부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 <Table 3>와 같다.

<Table 3> Psychological debt burden analysi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78)

Classification		M	D	t/F
Gender	male	3.41	0.5231	.498***
	female	3.49	0.4308	
Age (year)	<40	3.43	0.6190	.732**
	40~49	3.11	0.8611	
	50~59	3.42	0.4632	
	≥60	3.50	0.4832	
Academic Background	Under middle-school graduate	3.78	0.6944	.701**
	High-school graduate	3.40	0.4564	
	University graduate	3.45	0.5009	
	Over graduate school	3.36	0.2545	
Job	Office job	3.39	0.4459	3.555***
	Self-employed	3.47	0.4467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trades	3.63	0.5708	
	Homemaker	3.40	0.3987	
	Others	3.18	0.4528	
Number of household	1	3.45	0.5763	1.790***
	2	3.39	0.3488	
	3	3.43	0.5608	
	≥4	3.48	0.4815	

\* p<0.05, \*\* p<0.01, \*\*\* p<0.001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여성(M=3.49)이 심리적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며 유의한 영향(F=0.498, P=0.000)이 나타났으며 가장 심리적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난 나이는 60대(M=3.50)이상이었다(F=0.732, P=0.004). 학력은 중졸이하(M=3.78)에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채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0.701, P=0.002). 이는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저학력 집단이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취약한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므로 학력이 낮은 가구에 관심을 가

저야 한다고 시사한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직업에서는 농림 및 어업(M=3.63)이 가장 높은 심리적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555, P=0.000), 가구원 수는 4명 이상(M=3.48)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90, P=0.000).

4.4 심리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요인 분석

심리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affecting factors on Psychological debt burden

Independent variables	B	S.E	Odds Ratio	P
Gender (male=1, female=0)	0.089	0.085	1.052	0.294
Age (continuous variable)	0.589	0.024	24.786	0.000
Academic Background (University graduate=1, Others=0)	-0.045	0.072	-0.629	0.530
Job (Office job=1, Others=0)	-0.024	0.032	-0.765	0.445
Number of household (continuous variable)	0.095	0.070	1.351	0.178
average monthly debt payments / average monthly disposable income	0.342	0.062	5.483	0.000
total debt / financial assets	0.088	0.069	1.274	0.204
total debt / total assets	0.081	0.037	2.173	0.031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민주 등(201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진승훈과 임병인의 연구에서 고령자 가구에서 부채위험가능성이 크며 향후에는 부채위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16,17]에 확장하여 고령자 가구가 심리적 부채부담도 많이 느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평균 경상소득, 총부채/총자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평균 경상소득, 총부채/총자산이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채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심리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은 농림 및 어업에서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적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부채부담이 높은 가계 중 상당부분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총자산에 대한 부채부담특성이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부채금리를 낮추고, 가계부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적합한 금융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채보유 가계 중 심리적 부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에 비해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부채보유 가계에 인구통계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객관적 부채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부채보유 가계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S. Gerlach and W. Peng, “Bank Lending and Property Prices in Hong Kong”,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29, No. 2, pp. 461-481, 2005.  
 [2] C. Goodhart, P. Sunirand and D. Tsomocos, “A Model to Analyse Financial Fragility”, Economic Theory, Vol. 27, pp. 107-142, 2006.

- [3] D. W. Diamond and R. G. Rajan, "The Credit Crisis: Conjectures about Causes and Remed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No. 2, pp. 606-610, 2009.
- [4] G. Debell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rising household debt", *BIS*, Vol. 153, pp. 1-39, 2004.
- [5] L. Jeremy, T. Neumegeen and A. Knott, "Representing reach-to-grasp trajectories using perturbed goal motor states", *Springer-Verlag Heidelberg*, Vol. 280, pp. 250-261, 2012.
- [6] A. Main, K. Rao and A.Sufi, "Household Balance Sheets, Consumption, and the Economic Slum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8, No. 4, pp. 1687-1726, 2013.
- [7] G. B. Eggertsson and P. Krugman, "Debt, Deleveraging, and the Liquidity Trap: A Fisher-Minsky-Koo Approac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7, No. 3, pp. 1469-1513, 2012.
- [8] S. A. DeVaney,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To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5, pp. 5-24, 1994.
- [9] C. R. Hayhoe, S. H. Cho, S. A. DeVaney, S. L. Worthy, J. Kim and E. Gorham, "How do distrust and anxiety affect savings behavior?",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 41, No. 1, pp. 69-85, 2012.
- [10] M. J. Gwag, H. S. Lee and M. J. Kim, "Influencing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Total Debt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ubjective Debt Burden", *Korea Consumer Agency*, Vol. 43, pp. 157-175, 2012.
- [11] S. M. Danes, and K. D. Rettig, "Economic adjustment strategies of farm men and women experiencing economic stres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6, pp. 1-18, 1995.
- [12] K. Retting, S. M. Danes, and R. Leichtenritt,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sponses to economic stres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 26, No. 1, pp. 3-28, 1997.
- [13] K. A. Kim, "Study on Trend and Determinants of Domestic Households' Debt -Analysis of Micro-Level Data", *Applied Economics*, Vol. 13, No. 1, pp. 209-237, 2011.
- [14] A. Mian, K. Rao and A. Sufi, "Household Balance Sheets, Consumption, and the Economic Slump",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8, No. 4, pp. 1687-1726, 2013.
- [15] H. C. Chai, H. S. Lee, S. J. Yang and Y. A. Sung, "Development of the Indexes and Guidelin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 Using Financial Ratios",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Vol. 14, No. 1, pp. 99-121, 2003.
- [16] M. J. Gwag and H. S. Lee and M. J. Kim, "Influencing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Total Debt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ubjective Debt Burden",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 43, pp.157-175, 2012.
- [17] S. H. Jeon and B. I. Lim, "An Analysis on Repayment Capability of Financial Debt by Household Types",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31, No. 1, pp.97-124, 2013.
- [18] D. H. Kim and M. H. Kim, "Design of Mixed Reality based Convergence Edutainment System using Cloud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103-109, 2015.
- [19] Y. G. Kim and H. J. Lee, "A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self-growth experiences in a counseling skills training co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15-328, 2015.
- [20] <http://www.hankyung.com>. 2015.11.22
- [21] <http://www.chosun.com>. 2016.01.26
- [22] J. Lee, "The Speed and Trajectory of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http://www.frbsf.org>. 2015.09.11
- [23] <http://www.wikitree.co.kr>. 2015.02.23

이 신 남(Lee, Shin Nam)



- 199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2년 4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AIS, 관리회계
- E-Mail : lsn119@paran.com